

## 민선 8기 도정방향 집중 점검

제주도의회,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정례회 지역현안 점검에 이어 대안·개선방안 등 제시 작년 예산 효율적 집행여부도 송곳심사 예고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 8기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의회는 16일(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27일간 제40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등 안전 심사를 진행한다.

정례회 기간 중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오영훈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실시된다. 도의원들은 행정전반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으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는 '신3고'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15분 도시 등 민선8기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사청문회 시 마다 대두되고 있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한 도정 정책 추진 사항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등에 김 교육감의 공약 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이 끝나면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21회계연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결산심사 등이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7건, 도지사 제출 의안 41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을 포함한 총 54건의 안건을 소

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주요 안건을 보면 제주의 절대보전지역을 33만㎡를 더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절·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등이 있으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기한을 조정해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한 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송곳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제12대 의회 개원 후 첫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결산·예비비 심사인 만큼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원 모두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보고 민생의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보강 검토”

법무부, 김한규 의원에 인원 충원 계획 답변

법무부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인원 보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15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 확충 검토 계획을 법무부에 질의,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부 서면 질의를 통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 충원 계획과, 현재 합동수행단 인원으로 직권재심을 진행하면 희생자 및 유족 명예 회복까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함께 4·3위원회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의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업무 진행상황의 추이를 살펴 인원

보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2530명의 군법회의 수형인의 직권재심을 처리하기에는 인원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합동수행단 구성은 검사 3명(고등검사 1명·평검사 2명)과 수사·실무관 3명 등 6명으로 구성됐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는 지구촌 생명공동체 복원 출발점”

제주포럼 개막식... 국가·지역 넘어 연대·협력 강조 오 지사 “사람·자연 모두가 행복한 세상” 담론 제시

제17회 제주포럼 둘째 날인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열린 개막식에서 국가와 지역을 넘어 자연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담론이 제시됐다.

이번 제주포럼이 '지구촌 생명공동체 복원'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제주에 모인 세계의 집단지성들이 뜻을 한데 모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회식에서 “자연을 존중하면서 인류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구촌 운명체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이라며 “국가와 지역을 떠나 세계인 간 '연대'와 '협력'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코로나19 사태는 어쩌면 자연을 정복했다는 인간의 오만함이 부른 참사일지도 모른다”며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던진 교훈은 '탐욕을 버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기후변화 재해는 갈수록 빈발하고, 지구촌 미래를 어렵게 하며 인류와 자연 공동체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려되고 있다”며 “지구촌 평화와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향한 인류 공동체를 만들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오 지사의 개회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축사에 이어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기조연설을 이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국제사회 환경은 매우 엄중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기후변화와 팬데믹, 에너지 위기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국제사회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개별국가의 노력이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혜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제주포럼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기후위기, 신냉전 기류 등으로 세계평화와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국제적 위기상황에서 지구촌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백금탁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 코로나19 신규	293
잠정집계 15일 <17시 기준>	누적 33만223

Jeju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청정 자연과 건강한 삶, 행복 서귀포시의 근원입니다.

더 나은 서귀포시를 만들어가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시정방침**

- 행복한 민생복지
- 다양한 문화융성

- 튼튼한 산업육성
- 깨끗한 청정환경